



‘정신건강 으뜸도시 전주’ 비전 선포

시, 2035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118억 투입
심리상담·치매검진
마음돌봄 플랫폼 구축

전주시가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정신건강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사회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마음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조성하고 교육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신건강 선도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비전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면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고, 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매년 최소 1회 치매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목표다.

또 마을 곳곳에 마음돌봄 교육 공간이 운영되고, 나눔을 실천하는 정신건강 자원봉사자가 성장하는 도시를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총 1,118억원을 투입해 △예방으로 든든한 정신건강 의료돌봄 체계 마련 △일상에서 만나는 전주형 마음돌봄 강화 플랫폼 구축 △나눔으로 심신건강 자원봉사 활성화의 3대 전략과



우범기 전주시장은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정신건강 의료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신건강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신과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선도적인 치매안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오는 2030년까지 현 보건소 부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정신건강관련 인프라를 통합한 (가칭) 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전주형 마음돌봄 강화 플랫폼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전주형 마음돌봄교육인 ‘마음 온(온)’을 운영하고, 시민 마음돌봄 축제인 ‘마음 온(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즐겁게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음 돌봄 힐링 명소’도 발굴·지정키로 했다.

전주시는 △전 시민 자원봉사 캠페인인 ‘온정 한 시간’ 추진 △정신건강 특화 ‘온정 도다도다 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가치인정 확대 등을 추진해서 나눔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지키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

이다.

이날 발표된 비전을 토대로 더욱 세부적인 정책을 추가 발굴하고,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보건 의료 기관과 평생학습기관, 시민사회와 연대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마음과 행복은 전주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는 전주 대변역의 가장 중대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 들여다보며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올해 유망중소기업을 찾습니다’

도, 22일까지 신청접수... 12개사 내외 선정

선정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등 혜택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에서 성장 가능성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한다. 모집 기간은 22일까지이며, 최종 12개사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도내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1999년부터 25년간 총 522개 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지원해 오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신청 자격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 산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2일까지 기업 소재지의 시·군 기업지

원부서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군 추천(9월 23~25일)을 거쳐 서류심사, 외부 전문가 현장심사, 전북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를 통해 11월 중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향후 5년간 경영안정 자금 융자 최대 7억원, 이차보전 3%까지 지원, 보증보험료 10% 할인, 전북도가 운영하는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내 우수한 기업들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유망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027년 신규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굴

도, 새정부 재해예방 예산 증액 따라 1년 앞당겨 추진

신규사업 발굴 위한 타당성 용역 발주 주기 6개월 단축

내년 1월까지 총 5억3300만원 투입... 용역 진행키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새정부의 재해예방사업 예산 증액에 따라 2027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1년 앞당겨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재해예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25일에는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도·시군 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풍수해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도내 11개 시군 18개 신규 지구를 선정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 조기 발굴로 재해예방사업 추진 일정을 6개월(발굴시기 2026년 1월→2025년 8월) 단축해, 2027년 신청 예정이던 신규 대상지 사업을 2026년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약

6,300억원 규모의 국가예산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내년 1월까지 총 5억3,300만원(도 재관리기금 1억8,000만원과 시군 부담금 3억5,300만원)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 타당성 검증과 조기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택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사업발굴과 대응을 통해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2025년 8,800억원에서 2026년 1조546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도내 농식품기업 글로벌 판로 확대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기업과 함께 글로벌 판로 확대에 나섰다.

도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열린 ‘2025 수출비즈니스 데이’에서 총 125건의 상담(145만 달러)과 5건의 현장 계약(70만5,000달러)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관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본관 다목적 강당에서 3일간 진행됐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국가식품클러스

터와 전북도가 협력해 마련한 첫 공동 상담회로, 글로벌 바이어 초청 규모를 확대하고 도내 농수산물기업의 참여를 늘려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에는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주요 시장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했다. 1~2일 차에는 전국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담회가 열렸고, 마지막 날인 3일 차에는 전북 지역 농수산물기업 32개사와 글로벌 바이어 21개사가 1대1 집중 상담을 이어갔다.

특히 도내 5개 기업은 현장에서 수

출 계약을 체결했다. 감자빵을 생산하는 A업체는 싱가포르 BA와 50만 달러 규모 계약을 맺고 공장 투어까지 이어가며 신뢰를 다졌다. 파우치 음료를 생산하는 D업체는 인도 S사와 1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해 향후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가공식품, 음료, 간편식 등을 선보인 3개 기업이 바이어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에서만 총 70만5,000달러 규모 계약이 성사됐다.

이번 상담회는 전북 식품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신뢰를 쌓고 협력 가능성

2025 수출비즈니스 데이 참가

총 125건 상담·5건 계약 성과

을 넓히는 자리로, 전북 식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양 기관이 협력해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 식품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글로벌 유통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가며, 농수산물 수출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FIDA WORLD CUP JEONJU 2025

2025. 9. 25. 목 ~ 9. 28. 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대회개최	시범종목	공식행사	부대행사
드론축구 국가대표대항전 드론축구 클럽대항전 (CLASS40, CLASS20)	크래싱 슈퍼파일럿 선발	개막식[9.25.(목)] 시상식[9.27.(토)]	아간 드론라이프쇼 문화예술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드론산업 국제 심포지엄

주최: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FIDA, 주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조직위원회

www.fidaworldcupjeonju.com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FIDA WORLD CUP JEONJU 2025

2025. 9. 25. 목 ~ 9. 28. 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